四日午後早は總撤市おり、日子、京入城以共が軍用崇言の行動と、こが商店の二十二条階で行動と、こが商店の二十二条階で行動と、一次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 「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では、「日本の

舊農會의

成와中國人反感=

英國軍의行動

當局警戒一

向おの退却が思いる。

英軍은租界線の

〇三警備

拠長01金相續氏数育部長01金の屋八百五十餘國の達み

つ負擔

ルーテリョニを維持

하

上校¤死活問題

阜輔仁學校引受를運動

伏
立
反對

一下上海廿五日夏) 後江方面が火に孫軍の全部職窟から1五金線3 機関統 当据道하五叶八上海四部曹家渡 1面の印度兵約 世界界線 3機関統 当据道하五叶八上海四部曹家渡 1面の印度兵約 世界界線 3機関統 当据道하五叶八上海西部曹家渡 1面の印度兵約 6 年95出助八式日라

**自
学
者
도** 子弟景為かせ 自己

各地의普校期

의

一司中は一日の日本

軍의追撃。

亡如前

0]

私普期成

千圓積立金。三

5月頭 5.通告하火ニリ右 5編5野前の吳淞江夜間航行 3禁5季資章01:1十四日 上海領事上海(1十五日)

建盤版が関來らの限のの公司を開始を表現の記述の関する。

領事團抗

大利在以来上同校では、一般である。

大邱公會堂

だ賞、人選後夫 関急募集한山成績の顔可良好 関急募集한山成績の頗可良好 関急募集한山成績の頗可良好 を対し回の列于堂尹富求氏考 で、第、花의詩

城津貿易

輸出倍增

大邱府新年度豫算案会討議や結果着手望新規事業等プストの会置建設費と四萬圓の記計上コター

金成尹致鍊兪石海尹弘燮李細爾謙 [[本]] 金月玉女史(洪原)▲三等家) 鄭隆時、[[據]] 計消體 (南原) 金贵玉女史(洪原)▲三等家) 鄭隆時、[[據]] 計消體 (南原) 金贵玉女史(洪原)▲三等歌[[集]] 金仁英(京城)▲三等歌[[集]] 金仁英(京城)▲三等歌[[集]] 金仁英(京城)▲三等事明一等金惠圭(金化)▲二等李明一等金惠丰(金化)▲二等李明一等金惠丰(金化) かきい前旭町中國人裏順親商店市のと消防器具の不完備上因が市場と別が開発して完備上因が

でこれのなっていませい。 谷田人 公日 身以外の

足因から いか 幸足 か エ な 次 ら 叶

二十餘人所有의肥料可卫

保護引きを設置する。 のでは、 のでは、

◇暴樂

그런숙아모리常會하도 制度數가리치듯 信徒의미국을 상에驳明家가나서 미국測定器 가은것이라도생기가회에는 내 지역으로 등 사이용을 듯

一使用量

中の 中日司(吉州) ・ 中の 中日司(吉州)

光州河川工事
カリッグなどの前負人側の勢力
の定型ロかの世紀を正規限の関係に
上の破工知るが、六月頃竣工?
上の破工知るが、六月頃竣工?

端川農民講演 學友會主催豆

鳳凰城農友會

端川郡水下面仲の里高山村の分田夜の高新襲整内の分異民識が日夜の高新襲整内の分別民職が電景開が出男女老少가百餘名の達お界の満土み消阻といるコンでは(端川) 今司生活難의原因及對策 根本만以으면 卒得世 根本만以으면 卒得世 を消費 開西人親陸會 銀原の 水利組合の創設互後各處の外親 後二時の線原邑內中里本報支局 内の外開社中之可數超人の場故 泰、金額者、崔承五、全整数外 赤、金額者、崔承五、全整数外

一仁川의特別講演 年前十一時早已內里禮拜堂の分 年前十一時早已內里禮拜堂の分 氏의特別講演の公中と中回氏と 多年米國の在留하다가製月前の 動國党のミー般の口司企行하と 中の中日司(仁川)

解决의要素』

市內公立等校

の十号が生活の第宮色のようは一分ガスでは、一次ブスでは、一次ガスでは、一次ガスでは、一次ガスでは、一次ガスでは、一次ガスでは、一次ガスでは、一次が、一次が、一次が、一次が、一次が、一次が、一次が、一次が、 近二百戶 、稅金号

公普學藝

世日の諸殿事項会に横城)

 \Diamond 寸 \Diamond 鐵◆

【三院】 本郡郷校掌綱選罪の一金一百七十関也言選勤数三名 者か以中 ユョコエネ選出リ南 無阿彌陀佛!

| 「金泉」第二次及頻暖止減動
| 「金泉」第二次及頻暖止減動 【徳川】 孟山某駐在所巡査中の司に祭祀るのアメリーズを合い工飲食床言当心に対するでは、 大いたびせらず幸

五에出

野一公者二二〇名 三月十五日第一公者 一四〇名 三月十五日第二公者 一四〇名 三月十五日第二松者 七〇〇名 三月十日第二松者 七〇〇名 三月十日

一年 日午前十時半早計同校贈堂の外 日午前十時半早計同校贈堂の外 ●金典部氏二千圓 密勝宣嗣惟

「日午前十時半早計同校贈堂の外 ●金典部氏二千圓 密附資州面 の分ニ今春间面事務室建築平市 區改正工事其他施設三經資不足 三天기三計21可當地富豪金典。 氏上面事務室建築資補助豆現金 氏上面事務室建築資補助豆現金

地主對作人

平原煙草消費

產業組合

嚴選主義

惠山鎭公平。

汗浦幼稚園

의

0

다 커롱병원에서는 급히용급치료 다 생명에서는 급히용급치료 그자살로기산 이급보통진하 그지살로기산 현실이는 작년본 그지살로기산 호인한후 등본 보인하아 사람이로 세월등본 보인하아 사람이로 세월등본 보기사상을 비관하고 지원을 보보 보기사상을 비관하고 그와가리 당하고기 합이라더라(청진)

지내관렬동상십번디(市內質)에서 음식점 5억 5억 5억 대금을정한즉 자괴물(金聖烈) 지에이르러술 등 등 자기 등 사이에 기관 등 하면 인치하게 다고 위험 도 이불려한즉 도리어된 기관 모형 물 구라하고 도수 하려는 것 으로 가운이 발대하고 즉시 레 종도 가운이 발대하고 즉시 레 종도 가운이 발대하고 즉시 레

그일안주시내(安州市內)에 있는 건송료리엄자들의 소념을 방교있는 동시에 가디방에서 작부(附屬)들이 서대청황이를 일우는 현상임으로 문과가 여간하려고 일우는 현상임으로 보지 안전계가 당장하고 작부계가 작작하다고 한것도 안주경하고 작부계가의 파멸되어 어무리 하다 기 등왕 한 전기 이 아이라고 일수있다고 어무지가 당장하다고 일수있다고

安州風紀紊亂

工無効

賊反荷杖の豆

보고 하다 이 나는 한 가는 등 기안되는 들기안되어 된 것이 되었다. 그 이 사의 기가에 되었다. 그 이 사의 이 사의 이 사의 이 사의 이 사의 이 사의 이 사이에 하는 것이다.

지 그리라 여러사람들의 해단이거 조희상염에가서 명업부의 XX 등 등은 자리 들어오는이 있습니다만 역 등에 한국 바이는 이 무무양이로 인력거를 제속하여 이 사기정말 다양이로 인력거를 제속하여 나라를 기계 수상스러 마시지 요우를 하하였다 나리를 모양이로 산십분도못되는 사리 무양이로 생기하였다 모양이로 인물 등이 요지경인의 다 보이고 마시지를 이 요지경인의 다 보이고 마시지를 하였다 나리 무양이로 생기하였다 모양이로 생기하였다 모양이로 사기들이 요지경인의 다 나리 나라 하는 사기들이 요지경인의 다 나라 나라 하는 사기를 들는 사기를 하였다고 다 나라를 들어나라 되었다.

모래방에 밝으시다 인부들 권하겠다 기가 역개를

인기 전 명심으는 면기가 건너온 하는바람에 수

지고 청안이로 다라난 아지의 교육음악을 바다

지난유력정월십사일중남시산교 디자면현화리 (瑞山郡地谷面遊 北里) 산림감시(山林監閱) 김정 아나 무명한의 기장에 는일장북파가 대통리 김정희(金聖會)의장미리 당난(金干損)이라는 당년 열여 김 대표山面邑內라는 당년 열여 등자는 지금으로부러산면 음내 미(瑞山面邑內里)에사는묶근식

不貞한妻로 卫爱坎宁甘편

哀願

당하야운반한 이로분개

科差押後聞

「二十三」

からの ひとはしか のあのとし はまかけおけ、 唐史書この子にからの ひとはしか ののとし はまかけおけ、 唐史書この子に

[의사기 무허메요?·] 디언게 아랫습니까?나

보고있다가 수사있는 병원들형 하였다 정문을 들어스라니까던 화중압히 돌아쉬었는 젊으녀자 는어느방의 방문책이들만 알었 는데 그것이 수자이었다

疫死亡者數

數百家族

정원을 하면(다 한 는 병장보도한 비료를 차지점 평양부터 생산을당하고 돌아갓는바 그들이 하여 살아오는바 모아갓는바 그들이 가 친부자와이되었습으로 그들의 의가족들이기한에움면평양부를 되었습니다(편약) 소망이들러서

두거만 다되면 어고 되

婦不和显飲毒

浜河)のイトでは2人立三女の日 見るら(城津郡県

嶺美警察A沒常識

『新朝鮮』。宣無理押收

상부의명령이라고압수

コスの民田田小田県のの形の単への番目の中

다는데 차지막가서 오지들인 어요하다그는죄나 지으듯이 얼을이 붉어지며 공장으로 나려간 덕집부장이별안간그가리소리지 리는 바람에무엇인가하고 보니 그것은 직공이어린이의 송장만 한조회덤이들역개에머고용장이 로롱한분의분고리를잡고셨는평 『그것은 왜 이리로 가지고 나

그 시로 존심이나와 연차들의 이 이 리 번호에 수지는 안된다며 이 일 다시시하네움계이다 보며때 등 우에 올라스나 분압해발하지 안 안 등 총 주고있고 그에 달하지 리 부분열산의 솔늘이 멋이임치이 서 응명총 출출다 고만한자연을 보아도 두사람의 도청인이라면을 기차아들수가업정다 [발로 경지 아르시라 요 -]하며 당의 특성한다

조회가 업성구나는 괴호는